

3월19일(월)/벤전2:1~10 (3)

제목: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사람

산 돌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귀한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에 불과하며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요 장애물이 된다(7~8절). 그러나 그 산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다(9절). 그러므로 산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널리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19절).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은 공허이 없는 곳에서 공허히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 기독교가 아닌 모든 다른 종교의 특징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이다. 크리스천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고 있는 자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다니는 사람이다. 전자의 삶은 피곤하나 후자의 삶은 편안하다.

3월20일(화)/벤전2:11~12

제목: 크리스천은 거주자입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천을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거주자라고 하였다(11절). 그러므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더욱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한다(11~12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크리스천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12절).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이다. 나그네는 그 땅의 전정한 시민이 아니다. 나그네가 어떤 땅에 거할 때는 그 땅의 법률이나 표준을 존중해야 하나 자기 본 땅으로 돌아가면 자기 땅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률을 따라야 한다. 크리스천은 또한 이 땅위의 거주자이다. 그러나 이 땅 위의 영원한 거주자가 아니다. 저 건너편 나라를 향하여 여행하는 길 위에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최종 지점에 도달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무엇이라도 해서는 안된다. 순례자로서 적합하지 않는 인품이나 행동은 용납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는 모든 것은 끊어야 한다.

3월21일(수)/벤전2:13~17

제목: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였다. 크리스천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에게 복종해야 한다(13~14절). 또 크리스천은 선한 일을 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입을 막으라고 하였다(15절). 또 자유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며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하였다(16~17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씀이다.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위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진 것이 없고 지위가 낮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혹은 우리는 사람을 자기의 이용의 수단으로 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자기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한 도구로 본다든지 혹은 자기의 안락과 위로의 수단으로 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그의 자격과 자질과 상관없이 항상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항상 인격적인 것이어야 한다.

3월22일(목)/벤전2:18~25

제목: 예수님은 글씨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크리스천은 너그러운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친 후 크리스천의 고난에 관해서 입을 열었다(18절). 크리스천이 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라고 하였다(19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교육용이었으며 본이었다고 한다(21절).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모욕과 손상을 받으셨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22~24절).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우리들이 그의 자취를 따라가도록 ‘본’을 보여주셨다(21절). 여기서 ‘본’이라는 말은 고대 세계에서 어린이들이 글씨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습자 연습장의 글씨본을 말한다. 어린이는 그 글씨본의 위를 따라 써 나가면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베껴 쓸 수 있는 글씨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그 ‘본’ 위를 지나가야 한다. 그 위를 지나가지 않고 안락한 신앙 생활만 꿈꾼다면 우리는 뭔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아무 불평없이 고난 받으셨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억울하다며 불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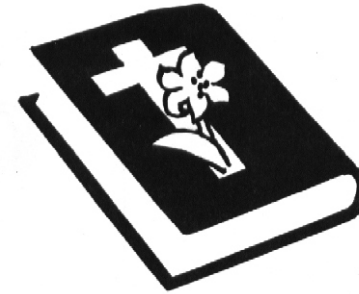
3월23일(금)/벧전3:1~6

제목: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베드로는 남편에 대한 충고보다 아내에 대한 충고를 더 많이 주고 있다. 특히 나 홀로 크리스천인 아내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남편을 구원시키려면 우선 남편에게 순복하고 말보다 행실에 신경을 쓰라고 하였다(1절). 특히 여러 가지 사치품으로 몸치장을 하는 것보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하였다(3~4절). 몸이나 얼굴이나 머리를 단장하는 것에 과도하게 점령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과도한 몸치장에 마음이 빼앗긴 아내는 남편을 구원하지 못한다. 모든 희망을 겉치장에만 둔 아내를 둔 남편은 참으로 서글픈 인생이다. 그것은 적당히 하면 된다. 그러나 과도하게 단장해도 좋을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온유와 조용한 마음씨이다. 만약에 아내가 온유와 조용한 마음씨로 마음을 단장한다면 그는 열국의 어머니 사라의 딸이 될 것이다(6절). 이런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한 최고의 설교이다. 아내는 말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조용한 마음으로 설교해야 한다. 온유와 침묵이 아닌 같이 치고 박고, 같이 고성을 지르고, 같이 욱두문자를 쓴다면 남편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 자리에 자리를 깔게 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고잔동 647-2)

☎485-0955, 401-2370(FAX) www.ansan1.org